

여명

여명노인복지센터 「여명」 통권 제25호

발행처 : 여명노인복지센터 ● 발행인 : 도성숙 ● 편집인 : 최 현

전 화 : (063) 224-5673 ● F A X : (063) 224-6896

560-860 전주시 완산구 배학1길 4-3

● E-mail : careym@hanmail.net

● 카페 : <http://cafe.daum.net/careym>

● 인쇄·디자인 : 대흥정판사 063)254-0056





햇살 같은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서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당신의 몸짓에서 사랑함이 넘쳐흐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봄날과 같습니다.



약한 것을 사랑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남 다릅니다.
풀잎 끝에 맺혀있는
작은 방울조차 깊은 의미를 둡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정감어린 사랑에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심안은 맑고 깨끗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앉은 자리에는
고운 햇살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햇살처럼 빛나기 때문입니다

배려하는 당신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합니다.



| 표지설명 |

화사한 봄날 온갖 만개한
꽃들과 함께 다같이 찰칵!

CONTENTS

- 02 아름다운 글이 있는 곳
햇살같은 마음이
- 04 여는 글
'맞춤복지'의 시야를 열어 준 여명노인복지센터!
정숙희 운영위원
- 05 월별 지원서비스
- 10 현장의 소리
오래 기억될 소중한 나의 군 생활!
박종찬 사회복지무원
- 11 2013 회계보고 /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 12 도움의 손길



‘복지’라는 말 자체도 너무도 생소했던 저에게 ‘재가복지’가 무엇인지,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깨워주며 ‘맞춤복지’의 시야를 열어주었던 여명노인복지센터가 저에게는 늘 자랑이었고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정숙희 본센터 운영위원



생각해 보니 여명노인복지센터가 개소한 지도 벌써 16년 째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지’라는 말 자체도 너무도 생소했던 저에게 ‘재가복지’가 무엇인지,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깨워주며 ‘맞춤복지’의 시야를 열어주었던 여명노인복지센터가 저에게는 늘 자랑이었고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뭔가 센터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는 것 뿐이지만, 늘 가족처럼 느껴져 따뜻하고, 마치 제 직장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여명노인복지센터를 부를 때 꼭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구요. **우리** 여명노인복지센터... 늘 센터 어르신들 근황이 궁금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반찬은 어떤지 궁금하고, 매번 절기가 되면 이번에 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챙겨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기대가 됩니다. 또 어르신들 야유회나 문화행사가 계획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시간을 이리저리 조절해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 이름표를 달고 어르신들 댁을 방문하고, 행사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손을 잡고 부축해 드리면서 저는 제가 그 분들께 드리는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을 선물로 되받습니다.

이렇듯 섬김과 봉사가 제게 자연스럽게 배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 주신 센터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로 하여금 늘 이웃과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명노인복지센터’!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방문서비스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말벗 및 우애, 가사지원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매주 금요일 두 분씩 선정하여 따끈한 영양죽을 지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어 드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 물품지원(1. 30)

새해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어르신 90 여 분께 찹쌀과 떡국떡, 만두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전달하는 모든 봉사자들 얼굴엔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고, 매해 기대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2
February

영화관람 '7번방의 선물'(2.20)

어르신들과 봉사자 30명이 '7번방의 선물'을 함께 관람하면서 한바탕 웃고, 한소금 울기도 했던 감동적인 영화관람^^



3
March

자원봉사 활동 (3. 30)

영성고 2학년 1반 전체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9분의 어른택 대청소와 말벗 및 우애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손자들 같은 학생들의 섬김에 어르신들은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귀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노노케어 발대식(3. 4)



4
April

자원봉사자 가족 단합대회(4.13)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 쏘던 날 저희 센터 자원봉사자 가족이 부산 장사도로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배 위에서 부딪히는 파도물살도 맞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늘 묵묵히 섬겨 주시는 센터의 귀한 보배인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꽃 나들이(5.1)

온갖 꽃들이 만발한 계절의 여왕 5월! 철쭉과 꽃잔디가 앞다투어 화려한 빛깔 향연을 펼치고 그 속에서 아기자기 자태를 뽐내며 다양하게 피있는 꽃동산에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당당히 걸음을 내딛는 어르신, 수줍게 가리워 핀 꽃처럼 소녀의 감성에 젖으신 어르신... 모두가 향기와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제10 회 전북재가노인초청 효도 큰 잔치(6.14)

♪ 잔치 잔치 열렸네^^ 전북 각 지역에서 모인 어르신들로 전주 화산체육관을 들썩이게 했던 놀이마당! 맛난 팔죽과 비빔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장구치며 노래하고 열수 춤추던 신나는 효도 큰 잔치!!



거문도백도 직원여행(6.3)

가히 장엄하기까지 한 100 개의 하얀 섬들 가운데서 부서지는 파도를 가르고, 빠알간 동백꽃길을 걸으며 go! go! go!



중복지원 (7.22)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삼복더위!
더위 잘 이기시라고 닭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시원~~하구려!!



직원연수 (8.13)

올 들어 가장 덥다고 예고된 더위 한 복판에 저희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연수를 갖었습니다. 산 좀 타신다는 분들도 힘들다는 통영 사랑도 등반길을 오르며 마치 몇 년 훌릴 땀을 그 날 다 쏟은 듯 했지만 한 해 중반의 의미있는 선포였습니다.



추석 물품지원 (9.10)

휘영청 짝 찬 등근 달처럼 풍성한 복을 소망하는 한가위! 어르신들께 햅쌀 10kg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담 하나 소개할게요 ::

90세를 바라보는 어느 부부세대 어르신들이 햅쌀을 사랑스럽게(?) 만지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시는 말씀 “이 쌀이 그냥 쌀이 아닌 것이여! 우리가 젊어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어! 농민들이 일 년동안 얼마나 마음 조리며 논을 살피는지... 자식 키우듯 농사해야 나오는 게 이 쌀이잖여...”



10
October



제2 차 영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10.11)



문화공연 관람 마당극
'놀부전' (10.24)

11
November



전북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 (11.21-22)

12
December

성탄 물품지원(12.19)

Merry Christmas!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에 저희도 어르신들께 맛있는 소고기와 찹쌀떡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해님이축제(12.24)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밤! 센터 직원들과 후원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감사로 열매를 맺는 해님이축제였습니다. Happy New Year!

노노케어 해단식(12.26)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전역 후 또 누군가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기억될 소중한 군 생활이 될 것입니다.”

▣ 박종찬 사회복지무원



저는 여명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케어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무원 박종찬입니다.

이 곳 센터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매일 만나게 될 어르신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긴장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먼저 웃어주시고 다가와 주시며
손잡아 주셔서 도리어 제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며 저의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아서인지 낯설지 않고 포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저의 친할머니처럼 생각하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2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처음 4급 공익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매우 창피했습니다.

공익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몸이 많이 안 좋거나, 어딘가 모자라서... 라고 생각들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왠지 존중해 주기보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 신분을 뉘뉘이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곳에서의 생활이 제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센터 선생님들을 도우며 어르신들을 돌봐드렸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전역 후 또 누군가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기억될 소중한 군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너그러히 품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명노인복지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회계보고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보조금	인건비	96,334,500	사무비	인건비	137,895,218
후원금	지정후원금	100,000		운영비	10,293,720
	비지정후원금	10,262,865	재산조성비	시설비	1,267,000
전입금	전입금	53,208,672	사업비	사업비	11,769,030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1,144,560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74,371	차기이월	차기이월	-
	합계	161,224,968	합계	합계	161,224,968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여가 선용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위탁받아 200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고 계십니다.

◎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55세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생활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잃어버린 기쁨과 건강을 찾아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물질후원 |

강미현	강원봉	권태균	권현정	김기현	김대곤	김요셉	김인순	김현석	김화영	노영숙	노인숙	도성숙
문세권	문규원	문다원	문도원	문채원	박금실	박완철	박은영	서옥주	신향순	오정순	우강숙	유덕순
유미	유정자	이국진	이금자	이소영	이수영	이정후	이희준	임선아	임은희	정숙희	주미애	차상미
차진석	최규홍	최명순	최미선	최순철	최승호	최정애	최현	황은희				

여명교회제2청년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물품후원 |

낙원떡집, 다복술, 대주 상사, 본죽중화산점, 봉유통, 송천건어물, 승현상사, 원불교 전북교구청, 진보식품, 코코호두곰알점, 푸드뱅크, 하나로떡집, 하림전주완산대리점, 형제유통

| 자원봉사자 가족 |

권태균, 김성근, 김요셉, 김옥례, 노영숙, 노은총, 도성숙, 박래승, 박지숙, 서윤원, 윤미례, 이수영, 임은희, 장한나, 장옥심, 정숙희, 조계석, 주미애, 최명주, 최명순, 작은봉사큰기쁨사랑의봉사대, 영생고등학교 2학년1반 (강철, 김종훈, 김민호, 김용관, 김세연, 김태양, 김평안, 박종호, 백무산, 서종주, 송낙훈, 신대일, 신중혁, 심규민, 유도원, 이승룡, 양희민, 이현준, 조충현, 최민우, 최지용, 최재용, 홍유담)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여명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 011708
농협 658-01-002798